

지리산 둘레길 여정 2

글. 심형규 CJB 청주방송 기술국 차장

산행의 첫 시작은 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지막 집에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큰 탈 없이 안전하게 오는 것이라 봅니다. 산행하다 보면, 내 뜻대로 맞지 않게 길 방향을 잘못 잡아 엉뚱한 곳으로 헤매도 그것 또한 산행의 한 일부라고 여기는 새로운 길입니다. 조금하고 다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순간순간들을 받아들이고 즐겨야 합니다. 이번 둘레길도 쉽지가 않다 보니 몇 번이나 길을 잘못 잡아 헤매며 투덜거렸지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 잡으면 그 나름의 정취와 멋이 있습니다. 2차 여정 첫날에 종일 내리는 빗속에서 한 시간을 헤매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차 지리산 둘레길

2021. 09. 26(일) ~ 09. 28(화) :
83km (남원 주천 ~ 산청 성심원)

2차 지리산 둘레길

2021. 10. 11(월) ~ 10. 14(목) :
173km (산청 성심원 ~ 하동 가탄)

3차 지리산 둘레길

2021. 10. 21(목) ~ 10. 22(금) :
65km (하동 가탄 ~ 남원 주천)



지리산 둘레길 지도 / 출처 : www.jirisantour.com

이럴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잠시 휴식 후, 마음을 다 잡고 크게 숨을 들여 마신 다음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산행 계획에 따라 완벽하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획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맞게 대처를 위한 여행연습이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 맛이, 그 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생각한 지리산 둘레길도 계획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다. 그 속에 나를 낮추고, 상황에 따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최종의 목표까지 가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지리산 둘레길의 지난 연재 1호에서 잠시 기억을 되살리면, 1차 여정의 남원 주천에서 시작해 2차 여정의 둘째 날 경남 하동의 하동호를 지나 평점마을까지 걸어왔습니다. 2차 여정의 이틀 동안은 비를 내내 맞으며, 물에 빠진 생쥐처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등이 다 젖어서 평점마을에 민박하며 밤새 말리고, 2차 여정의 셋째 날을 시작합니다.

2차 셋째 날(10/13 맑음)

: 11구간(하동 평점 - 삼화실) ~ 12구간(삼화실 - 대축) ~ 13구간 (대축 - 원부촌), 36.06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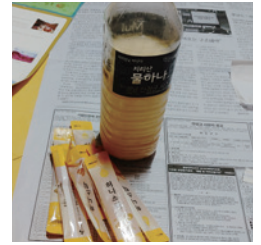
이틀 동안 비에 젖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다잡고, 재정비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분주히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마시다 남은 막걸리에 산청 달팽이님의 꿀 스틱을 섞습니다. 꿀 막걸리에 오늘의 피로를 부たく해 봅니다. 출발하기 전 스트레칭으로 20분가량 충분히 몸을 풀고 시작합니다. 이틀 동안의 비가 오고 난 뒤의 맑게 갠 선선한 아침 바람에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이 공기를 들여 마십니다.



하동 황금 들판



물집 가득한 발



막걸리꿀

조금씩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겨 봅니다. 발에 잡힌 물집과 마찰로 생긴 뒷꿈치의 통증이 오지만 이내 참습니다. 참다 보면 어느새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리하더라도 3구간(대략 90리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14구간인 하동 화개면 가탄마을에서 끝내고, 오후에는 청주로 돌아가 저녁에 TV주조정실 근무를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리산 둘레길 3차 여정을 조금 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걷다 보면 하동 가을 황금 들판의 길은 향내에 감격합니다. 지친 내 몸이 풍성해지는 그 감격에 올 한해를 풍성하게 보낼 수가 있겠네요. 삼화실 서당 무인 휴게소에서 라면과 즉석밥으로 점심 요기를 합니다. 커피도 끓여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 물론 쓰고 난 후 잘 정리해야겠지요. 사용요금은 계좌이체로 보냅니다.



신촌마을 고양이

하동 서당 무인쉼터



쉽 없이 오르고 내려가는 것을 반복하며 오르막을 계속 걷다 보니 하동 구재봉을 넘어갑니다. 구재봉 안부에서 섬진강이 저 멀리 보입니다. 섬진강을 보았다는 흥분에 힘을 내어 봅니다. 부지런히 서둘러 걸음을 재촉합니다. 넓게 펼쳐진 평사리 들판을 지나 악양천 독방길을 걸으니 오후 4시 경에 평사리 입석 마을 도착했습니다. 하동 형제봉이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 한 구간을 위해 서두릅니다. 형제봉 고개를 오르면서 이미 날은 어두워지고, 심신의 피로로 쌓여 걸음을 옮기지 못하네요. 식수도 여의치 않습니다. 여기에 원부춘 마을까지의 형제봉 바윗길과 돌계단으로 더욱 심신이 지칩니다. 피로하지 않으면 이 정도는 쉽게 넘을 수 있는데, 이미 오늘 도상거리 30km 넘어섰고, 3일 동안의 피로가 겹칩니다. 간신히 밤 9시 넘어서 원부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의 첫 농가 수도꼭지에서 팔팔 나오는 물을 숨 가쁘게 마셨습니다. 간신히 원부춘 마을에서 숙소를 잡고 지나온 길에서 주운 산 왕밤을 깍습니다.

2차 넷째 날(10/14 맑음)

: 14구간(하동 원부춘 마을 ~ 가탄), 13.25km

그리 유쾌하지 못한 야박한 민박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화는 나지만 어쩔 수 없지요. 할 말은 하고 싶는데, 지면에 실기에는 그러네요. 나중에 청주에 돌아와 지리산 둘레길 홈페이지에 후기 글을 남겼습니다. (참고, '지리산 둘레길' 홈페이지/ 나눔마당/ 지리산 둘레길 후기/ 621번 '원부춘 민박의 불쾌함')

현고도 △235m이고, 형제봉 고도 △800m를 넘어야 합니다. 저 너머로 광양의 백운산 능선이 청명한 하늘에 펼쳐 보입니다. 나중에 백운산 자락을 찾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몸을 충분히 스트레칭으로 풀고 서둘러 갑니다. 오늘 야근이어서 어서 서둘러 가야 합니다. 형제봉까지는 급한 경사면의 임도 길이지만 쉽 없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간간이 오는 발꿈치의 통증을 그냥 모른 채합니다. 또 다시 걷다 보면 잊어버리니까요. 형제봉 800m 고지로 넘어서면 임도 삼거리가 나옵니다. 가탄마을로 아래로 빠지는 산죽군락지의 산길로 들어섭니다. 산길 내리막에서 모처럼 산객을 만나 전날 요깃거리로 깍은 생 왕밤을 나누며

우계저수지



분지봉에서 보는 섬진강



하동 형제봉





하동 천년녹차밭 길

산중잡담(山中雜談)을 길게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어서 부지런히 가야겠습니다.

내리막 고개에 다다라서 하동 하늘호수 녹차 차밭을 만납니다. 이제부터 마을 임도길로 이어집니다. 마을 길로 들어서니 천년 녹차밭이 길게 늘어 서졌네요. 쾌청한 맑은 날씨와 천년 녹차밭 길이 시원하게 잘 어우러져 빠르게 걷는 내내 힘들음을 모르게 합니다. 천년녹차밭 길을 지나니 하동 화개마을이 저 멀리 보입니다. 14구간인 가탄마을 종점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대략 2km 정도 더 가면 하동 화개 공영 버스 터미널이지만 버스 시간을 잘 몰라 서둘러 가기 위해 택시를 부릅니다.

아, 하동 화개 공영버스터미널에 도착하니 구례로 가는 버스는 10분 전에 떠났습니다. 그다음 버스를 기다리려면 2시

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처 택시기사님께 물으니 구례구역까지 미터계로 3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기에 망설임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아, 출발 전에 못내 아쉬워 택시기사님께 양해를 얻고, 근처 마트에서 하동 화개 막걸리를 종류별로 3개 구매합니다. 그리고 택시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조치원역 가는 기차를 예매합니다. 구례구역에 도착해 기차 시간이 많이 남아, 갈증의 목을 달래려 오늘 못 먹은 막걸리를 벌컥 마십니다. 산행 중에는 간간이 마시는 막걸리에 그리 취기가 없었는데 머리가 알팔팔합니다. 기차간에 술기운에 벌렁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다 보니 어느새 조치원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청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합니다. 나흘 동안의 땀에 젖은 옷들의 빨래와 짐 정리를 대충 하고 야근을 준비합니다. 무사히 걸었음을 감사하며, 회사 후배들을 위해 양손에 치킨과 피자를 사 들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하동 막걸리

3차 지리산 둘레길

3차 첫째 날(10/21, 맑음)

: 15구간(경남하동 가탄 - 전남구례 송정) ~ 16구간(송정 - 오마을) ~ 17구간(오미마을 ~ 방광마을), 3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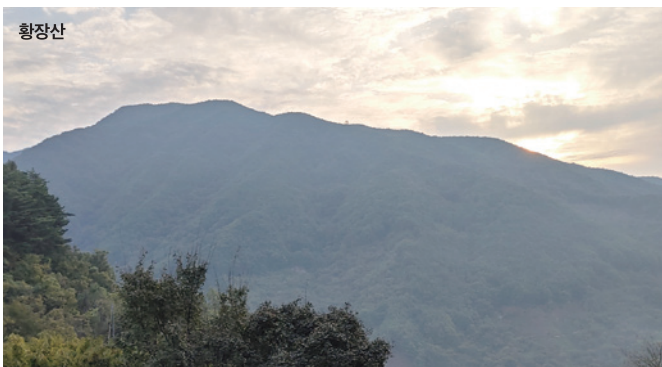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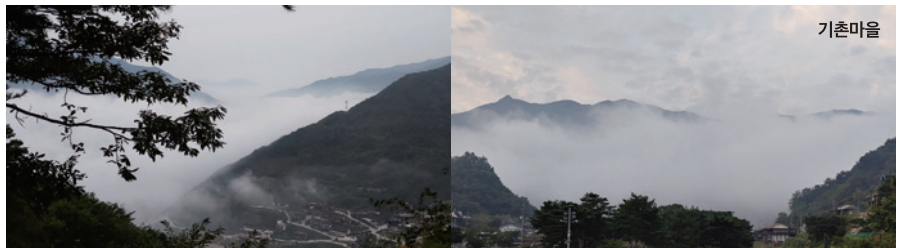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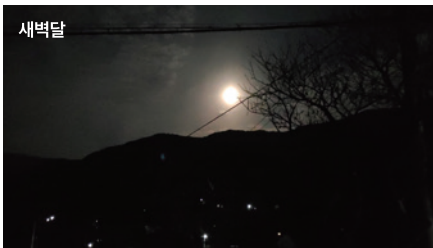
지리산 둘레길 2차 여정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지나서 3차 여정이 시작됩니다. 4차 여정으로 가지 않기 위해 3차에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완주할 목표를 세웁니다. 보통 지리산 둘레길이 21구간인데, 저는 19구간으로 끝냅니다. 지리산을 원형으로 도는데 불필요한 꼬리 부분의 하동 대축~서당마을 1구간, 구례 오미~난동 1구간은 과감히 뺍니다. 저에게 주어진 진행 일정에 지장이 있어서요, 때론 불필요한 것을 생략하는 것도 전체 일정에 더 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청주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날 야근 후, 몇 시간 잠을 자고 개인 볼일 본 다음 조치원역으로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열차 시간이 조정되어 저녁 11시경 출발하는 여수행이 막차입니다. 다음날 첫차는 오전 7시경에 있네요. 전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박으로 이동합니다. 구례구역까지 가는 심야기차 안에서, 잠을 청하지만 긴장을 해서 그런지 쉽사리 잠들지 못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눈을 감습니다. 새벽 2시경에 도착하여 택시기사님과 새벽 5시에 출발하기로 정합니다.

새벽 일찍 출발 못 하는 것은 너무 어두운 것도 있지만, 밤 깊은 마을을 지나면 개들의 짖어 마을주민들에게 민폐가 되어서요. 다시 구례구역 안의 의자에 기대어 잠을 청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마음일 뿐. 새벽 4시 30분이 돼서야 정신 차리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니다. 새벽 5시에 약속한 택시를 타고 하동 화개재의 가탄마을로 이동합니다.

현재 시각 새벽 5시 25분, 섬진강의 새벽안개가 짙습니다. 몸이 시리고 귀가 조금 시리네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새벽달이 맑게 보입니다. 새벽 둥그런 달이 저를 비추어 줍니다. 가탄마을에서 시작해서 화개중학교를 지나 법하마을을 지납니다. 마을을 지나가는데 개 한 마리가 짖네요. 마을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하동의 작은재(△305m)는 하동과 구례의 경계선입니다. 이 작은재를 지나면서 이틀 동안의 피곤함에 지친 줄음이 물밀 듯 몰려옵니다. 밀려오는 줄음을 쫓으려고 몸을 강하게 자극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자학(?)하니 간신히 잠을 이겨 냅니다. 커피믹스 봉지 2개를 뜯어 그냥 가루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계속되는 줄음에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3차 여정도 만만치 않네요. 오늘 세 구간을 무조건 돌아야 내일 두 구간만 하면 지리산 둘레길 완주가 끝납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다니다 보면 이순신 장군님의 백의종군길과 많이 겹칩니다. 16구간 지나서 편백 숲을 지나는데 졸



음이 계속 물려와, 구례 송정 계곡의 백의중군길 나무 평상에 신문지를 펼칩니다. 자켓을 입고 한 시간 정도 잠을 청합니다. 조금은 쌀쌀한 날씨이지만 졸음이 날씨를 이깁니다. 그나마 한숨 자니 좀 괜찮네요. 산바람을 맞으며 자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산바람이 쌀쌀합니다. 오고 만나는 사람 없는 지리산 둘레길, 이번 구간도 밥 사 먹을 집도 없습니다. 그나마 청주에서 사 온 떡으로 요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동 녹차 막걸리로 힘을 냅니다. 이리다가 술꾼이 되겠네요!

오후 4시경 오미마을에 입구 도착하니 마을 슈퍼가 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부탁하니 라면과 밥을 주십니다. 정말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니 속이 든든해집니다. 다시 오늘 마지막 구간인 방광마을로 이동합니다. 밥을 먹으니 이제야 하늘과 땅이 보이고 주렁주렁 익어가는 감과 고개 숙인 황금벼가 느껴집니다. 어두워질 무렵 화엄사 입구를 지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오늘의 종착지입니다. 저녁 7시경에 방광마을에 도착하여 주위 민박을 알아보는데 가격이 좀 비싸네요. 이럴 바엔 택시 타고 구례 읍내에서 자는 것이 나을성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용한 택시기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다 보니 노고단 쪽으로 서서히 떠오르는 달님이 보입니다. 둥근 달님의 광경이 황홀합니다. 순간 숨이 멎습니다. 달님이 너무 이뻐서요.



든든한 순대국으로 저녁식사

택시를 타고 구례읍에 도착해 (택시비 만원) 정통순대백화점에 왔습니다. 와, 맛집입니다. 잘 익은 파김치를 순대국밥에 잔뜩 넣어 가위로 썬 다음 먹습니다. 파김치 맛도 일품이고 부부 사장님의 인심도 넉넉합니다. 구례에 놀러 오신 분들은 드셔봐요~, 최곱니다. 사장님이 초행길이라고 인근 모텔까지 본인 차로 안내해줍니다. 구례분들의 친절에 무한 감격!

3차 둘째 날(10/22 맑음)

: 18구간(전남구례 방광마을 - 산동마을)

~ 19구간(산동마을 - 전남남원 주천마을), 30km

모텔에서 새벽 무렵에 일어나 30분 정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여정을 준비합니다. 맛과 인정을 못 잊어 어제 갔던 정통순대백화점에 가려고 하니 못 찾겠네요. 이리다가 시간이 늦을 것 같아 포기하고, 다시 모텔 근처로 돌아와 아침 식사 되는 곳에서 식사합니다. 음식이 정갈하네요. 미술 갤러리와 같이하시는 분 같습니다. 손이 조금은 느리지만, 그 속에 주인장의 품격이 보입니다. 택시를 타고 다시 방광마을로 도착해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주렁주렁 열려 있는 감들을 바라보며, 하늘과 땅에 순종한 벼 이삭들에 감동합니다. 조금은 이질적인 예술인 마을을 지나, 난동 마을에 들어서는데 둘레길 길목의 어느 집에서 멈춥니다. 풍경소리가 너무 이뻐서, 장독대의 향아리가 이뻐서, 마당 건너다보이는 산(천마산) 줄기가 너무 이뻐서요.

나도 모르게 풍경소리에 취해 안치환의 '풍경을 달다'(정호승 詩)를 불러 봅니다. 감격에 취해 사진 한 컷을 찍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면서 놀라십니다. 바로 사과를 드리고, 처마 끝에 풍경소리가 이뻐서 찍었다고 말씀드리니 웃으면서 커피 한 잔을 주시네요. 넉넉한 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도길로 굽이치는 구릿재(△465m)를 넘어서면서 왼쪽 발꿈치가 인대가 아파



일회용 밴드로 응급처치



풍경소리를 들으며



일회용 밴드로 여러 겹을 붙입니다. 구릿재의 수목원을 지나서 18구간 산동에 도착했습니다. 산동 면사무소가 18구간 종착지입니다. 코로나 영향인지 주변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면 소재지 마을이 행합니다. 아, 또다시 밥을 못 먹네요. 포기하고 마지막 19구간인 남원 주천으로 그냥 진행합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 조금 지나면 마을 저수지가 나옵니다. 저수지 옆의 정자에서 청주에서 갖고 와서 먹다 남은 찬 떡과 찬 커피 그리고 남원 막걸리로 점심을 때웁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이 옆 마을이 계척(桂尺)마을로 들어서는데 한 스님이 걸어오시길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께서 웃으면서 조금만 더 가면 토굴(土窟)인데 차(茶) 한잔하자고 하시길래 시간 때문에 망설이다 이내 쫓아갑니다. 이런 기회도 흔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계척마을 위로 300m가량 올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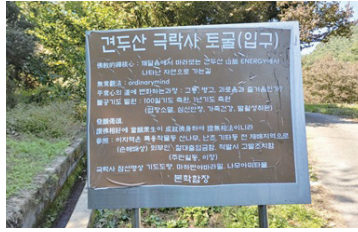


계척 저수지에서 점심

니 계척마을의 극락사 표지판이 보입니다. 혼자 기거하며 수도하는 곳입니다. 이 극락사 뒷마루에서 저 멀리 지리산 만복대와 노고단이 보입니다. 우와 극락이 맞네요. 여기에 30년 된 보이차를 얻어 마십니다. 몇 찻잔을 오고 가면서 산중한담(山中

閑談)을 나눕니다. 그러다 산청의 달팽이님에게 전화 옵니다. 어제 못 만난 것이 서운하여 산수유 마을로 온다고 하기에 이쪽 위치를 알려 주었습니다. 스님과 한담(閑談)은 여기서 끝내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마을 초입의 경로당에서 달팽이님을 만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같은 연배이지만 저보다 마음 씀씀이와 생각의 깊이가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최근 읽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한 부분을 들려주는데 역시 그 영성의 깊이가 남다른입니다. 저처럼 장난기 많고 조금은 엉뚱한 성격의 사람과 확실히 다르네요. 이렇게 좋은 만남과 이어지니 벌써 오후 2시입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최종 목표인 남원 주천까지 13km를 더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크게 숨을 들여 마시고 뿔으며 힘차게 달려 봅시다.





계척 극락사에 스님께 얻어 마신 보이차

산청달팽이님과 계척마을 정자

산동면 계척마을을 지나면 편백 숲을 만납니다. 맑고 깨끗한 시원한 산소에 힘을 얻습니다. 밤재(△490m)를 오르기까지 지짐 없이 올라갑니다. 밤재는 구례와 남원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 밤재도 이순신 장군님의 백의종군 길과 겹치네요. 쉽 없이 내달립니다. 둘레길 첫 여정의 시작점이었고 둘레길의 종착지인 남원 주천 탐방안내소까지 오후 5시경에 도착합니다. 이 여정의 끝을 보았네요.

급하게 빠르게 걷다 보니 생각처럼 많은 감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과 땅에 순종하며 고개 숙인 벼와 풍성한 감들을 보았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깊고 많은 묵상은 하려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

니다. 의도치 않게 지리산 각 지역의 막걸리 맛을 즐기는 막걸리 순례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지리산 둘레길입니다. 다시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다면 시기를 잘 선택해 비박하며 걷고 싶네요. 욕심 같아서는 이번 지리산 둘레길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백의종군 길과 몇 번 겹쳐서 이것 또한 걷고 싶습니다. 하나의 종착지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합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훨훨 다 털어버리고 내달리려 합니다. 바람이 일러준 길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방송과기술’에 ‘지리산 둘레길’ 두 번의 연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하고 졸렬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생 끝에 받은 지리산 둘레길 순례증

